

# 계양을 예상 밖 초접전에 민주 '비상'

## '이재명 효과' 회의론도...민주당 '뒤통'서 초접전

### 민주 지지도는 올해 최저치 경신하며 악영향

#### 이재명 "민주 지지율 급락...저라고 예외 아냐"

6·1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에 걸렸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본인 이 출마한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이재명 '비판'으로 여당 안정론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까지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선거에 빨간 불이 켜져 당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

가 경인일보 의뢰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지도는 46.6%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6.9%)와 오차 범위(±4.4%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가 기호일보 의뢰로 진행해 전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7.7%를, 윤 후보는 47.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지도는 45.8%로, 상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49.5%였다.

인천계양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계 텃밭'으로 분류된다. 당시 송영길 의원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로 인해 치러진 2010년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선거구가 계양으로 재편된 제17대 총선 이래 총 5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계 의원이 당선됐다.

특히 이곳에서 총 5번(16·17·18·20·21대)의 국회의원 배치를 맡았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전 지역구라는 점에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출마는 '대선 패장이 너무 안전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안정적인 지지도를 전제로, 대선후보였던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의 민주당 '얼굴' 역할을 하며 지지세력을 결집, 선거 흥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

망했다.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가 직접 출마하고 현장에서 지원하며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유기도 하다.

문제는 인천 계양을 민심이 좀처럼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기울고 있지 않은 데 있다. 자연스레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래,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개 계양을을 포함한 인천 지역에 머무르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참석), 13일(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방문), 17일(5.18 민주화운동기념일 계기 전북지역 방문) 정도를 제외하면, 인천을 벗어나 전국 차원의 지원운동을 벌인 것은 이번 21일~22일 주말이 처음이다. /뉴스

## "광주 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실태 조사해야"

광주의 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하는 소각 시설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3일 오전 광주 서구 소재 사업장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 A사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근 상인·주민 10여 명은 소각장 주변서 생활하며 겪고 있는 대기오염, 악취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 주민들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폐 질환을 겪고 있다", "기온이 낮을 때는 A사의 소각시설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주민 피해가 크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또 A사 시설이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환경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종합측정망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간담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A사 시설 주변 주민·상인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대기질 모니터링을 벌여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사위 광상언 변호사가 23일 오후 전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 文, 盧 13주기 추도식 참석... "약속 지켜서 감회 깊다"

### 추도식 박수세례...정세현 "文 5년 선진국"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참석 후 "약속을 지켰다.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인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힌 후 5년 임기 동안 부인 김정숙 여사를 보내는 것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아내는 연신 눈물을 흘렸다. 그리운 세월이었다"며 "'우리는 늘 께어있는 감동이 되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처럼', 함께 해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서 추도식에선 5년 임기를 마치

고 퇴임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10·4 남북 공동선언,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상기시킨 뒤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며 "보수진영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예전과 우리 주체에 무슨 균형자냐, 한미 동맹이나 잘 챙기라는 보수진영의 비난과 비아냥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정 전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문 전 대통령이 외계시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6위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이 "이 박수는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자 추도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문재인'을 연호했다. 여당에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 전 대통령도 참석자들의 연호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화답했다.

정세균 이사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솔한 어려움은 이겨내고 오늘 비로소 반가운 얼굴로 마주하게 됐다"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문 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고 말씀드리겠다"며 "5년 전 약속을 지킨 문 전 대통령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느냐"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추도식 후 권양숙 여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했다. '너러바위'에 헌화한 문 전 대통령은 눈시울이 붉게 물든 채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추도식을 떠났다. /뉴스

## 민주당 무안군 지선 후보들 실천 공약 1호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무안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국민 30만원 지급'을 공동 실천공약 1호로 선정했다.

특히 선거 직후 무안군-군의회 간 즉시 협의를 통해 9대 군의회 1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군민들에게 즉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1명의 민주당 무안군 후보자들은 23일 최옥수 무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협의회 및 공동공약 1호 실천 서약식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민과 학생, 자영업, 직장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아픔을 함께 하고 국회 제1당, 무안 제1당의 후보들로서 책임감을 다할 것"이라며 공동실천 1호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협의회를 마친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실천 서약식을 열고 "1호 공동실천 공약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 국민 30만원 지급을 선거 직후 무안군-군 의회 간 즉시 협의를 통해 9대의회 첫 안건으로 의결한다"고 서약했다.

## 해외 입국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방역절차 간소화

"RAT 대체 추세...해외 PCR 검사 비용 고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절차가 오늘부터 간소해진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국내에서 RAT를 PCR 검사와 같이 표준적인 확인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또 PCR 검사를 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 광주교육감 선거 단일화 논의 급부상

### 광동원 후보, 박혜자·정성홍 후보에 단일화 제안

광주교육감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화 논의에 이름을 올린 일부 후보 간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광동원 후보는 23일 "5명의 후보가 출마할 경우 투표 분산으로 시민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박혜자·정성홍 후보에게 시민 후보 추천을 위한 단일화를 긴급 제안했다.

광 후보는 "교육은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가치와 철학,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의 지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 후보는 단일화 시기에 대해 오는 26일까지로, 단일화 방식은 공신력 있는 설문지형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그 동안 단일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있던 박 후보 측은 "환영한다. 수용한다. 다른 한 후보(정 후보)의 입장



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를 성공시켜 시민의 염원을 이루겠다"며 "민주·진보 광주교육감 단일화는 밝은 광주교육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여망이다. 이 같은 부름에 답해 단일화에 적극 참여하겠다. 다른 후보들도 함께해달라"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정 후보 측은 "광 후보의 제안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는 박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교육의 가치와 철학,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의 지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 판세에 따라 단일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도기 기자

## 김영록 "노무현 정신 계승·지역통합 추진"

###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묘역 참배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 전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묘역을 참배하고 "반칙과 특권 없는,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꿈꿨던 노 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인이 외쳤던 정치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통합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며 "묘비에 새겨져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

## 한덕수 "국민 행복 위해 혼신의 힘 다하겠다"

### 세종청사에서 48대 국무총리 취임식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의 취임식이 23일 열렸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상식과 공정의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민간·시장·기업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나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며 "사회와 경제 갈등 구조의 해소를 통해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



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호매민평**

이태헌

태헌